

저의 억울함은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까요?

상대방의 허위신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친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우습게 억울하게 제멋대로 밟아 놓아도 되는지?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허술하니? 말로만 들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다가왔습니다. 제로 당해 보니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없네요. 머리 툴 나고 처음이고요. 서두가 너무 길었나요?

저는 결혼이민자 김옥순입니다. 제주주 한림읍 옹포 8길의 3 고관 수님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혼인을 했고 2009년 12월에 입국했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이 많지만 간략해서 이야기할게요)

근데 정작 와보니 결혼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더군요. 이미 남편의 이름으로 돼있던 사찰은 (추가 :고관수님은 관음정사 주지스님)경매에 넘어갔고 파산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환상적이진 않지만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혼인생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왓, 이 상황에서 같이 있을 곳도 없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고 지금은 본인의 일 만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서울 언니나 동생한테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봐도 딱한 사정이었습니

다. 그냥 불쌍하고 참 안됐구나 싶어서 서울로 왔습니

다만 언니나 동생부부와 같이 있을 여건이 안되어 이직 저직 전전공공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무슨 소식 기다렸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라도 물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전화도 안 받더군요. 순진한 마음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죠. 그분이 몸이 좀 불편한 분이어서요.

사기결혼이라고 확 신고도 할가 생각했지만 그분이 벌금 할 돈도 없을뿐더러 저 또한 부자한테 시집간다고 큰소리 뽐치고 왔는데 쪽 팔려서 중국으로 되돌아 갈수가 없더군요...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

거든요. 이렇게 1년이 지나서 체류연장도 해야겠고 해서 제주도로 가서 남편을 만났습니

다. 그제 2010년 11월 18일입니다. 그때도 그분 집에는 못 가봤고 어디서 사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

다. 그것까지도 이해하려고 했습니

다.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미 파산신고도 했구요. 저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는 해야 하기에 일을 했

는데 갑자기 손을 많이 놀리는 일을 하다 보니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무슨 원인인지 의료보험이 안되더군요.

하여 수술을 못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침도 맞고 약도 먹으면서 겨우 생활을 지탱해 갔습니

다. 지금까지도 이렇고 있지만

그분 만나서 체류연장에 대해서 상의하려고 했는데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ㄴ다),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워니 1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많이는 못하지만 한 달에 얼마씩 되는데로 보내줄게 20만원이든, 15만이든 아껴먹고 쓰면서 보내 줄테니 걱정 말라고 했

죠. 저로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였죠. 근데 더가관인 것은 저보고 각서를 쓰라고 하더군요. 돈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러는지(각서 사려우니 1년 연장해 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각서까지 써 주었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그냥 가출신고를 하면 쉽게 이혼이 된다고 하면서 그리 하자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

죠. 당장 2~3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데 저는 당황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여 “하지만 사업을 포함한 내 모든걸 포기하고 한국에 시집와서 불법체류자가 된다는게 말이 되나”고 했어요.

부득이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안 되기 위해서 각서를 쓰긴 했는데 당시 제가 목은 모텔에 고관수님이 젊은 남자 한분과 서귀포에서 유명한 스님 한분과 같이 와서 쓰라고 하더군요.

물론 은행계좌번호까지 적어주면서. 통장주인은 고유빈이란 아

르틴데요. 외 손주이지만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인지 고관수님의 호적에 있었어요.

자기가 파산 신고한 신용불량자라면서 고유빈 앞으로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쌍방이 싸인을 하고 한부씩 가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11월부터 돈 보내주면 안되

나고, 사실 전 그때 돈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 식당 취직은 했지만 하다 말다했고 병원도 다니느라 손에 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대담했습니다. 사정이 저보다 어려워니... 그때부터 쪽~, 10만도 보내고 20만도 보내고 15만도 보내고 전화도 안 받으니 돈

을 보내고 문자도 쪽쪽 보내고 안 받는 전화도 매달하고...

그렇게 2011년 7월 15일까지 보냈습니

다.(증거자료도 있음)돈 보내고 문자, 전화도하고...

받거나 말거나 매달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12월 3일 날 전화해도 안 받으니 문자 날렸습니

다. 11일 비행기 표 예약했으니 제주도에서 만나자고 당신도 날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렇게 살 바에는 깨끗하게 이혼하자, 당신이 바라던 바가 아니냐고 했어요.

그제서야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이혼이 됐대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그랬

죠. 그래도 차분하게 이혼사유가 뭐였냐고 했더니 어물어를 하면서 파산 그런 걸로 몰아서 했대

더군요. 미심직은 마음에 동사무소로 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안 된대

네요. 저의 이름으로 이혼사유를 보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제주도로 날아 갔습니

다. 가서 확인해보니 이미 이혼은 돼있고 이혼사유가 글씨 가

칠신고로 돼 있

더군요. 참으로 억울하고도 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였어요.

이혼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2009년 9월에 입국하고 10월경에 가출해서 현재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되었

어요. 사실 저는 9월, 10월에 한국에 입국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가출이며 또 무슨 저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x 들(미안)이었

어요. 최소한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무책임한 판결을 내려서 한사람의 인생에 오점 낙인을 찍어놨으니 참으로 대한민국법이 허~술한 건지 무책임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범람자문도 받아보고 찾아 다녔지만 일개 힘없는 외국인 여성이 뭘 하겠습니

까? 돈도 없고 뺨도 없으니...

전 바라는데 없습니

다. 혼인은 이미 파탄됐으나 다만 가출이란 말도 안 되는 누명이 억울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

냅니다. 가출하려고 맘만 먹었더라면 말대로 입국한 날로 바로 뫼웠을 것

입니다.

며칠 뒤면 체류기간 만료입니다. 급하고 억울하고 해서 자문 받아봤지만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해야 한

다

네요. 일단은 비용이 많이들 뿐더러 시간이 긴급합니다.

저는 지나온 세월이 한심하게 느껴져 이렇게 사연을 보

냅니다. 사

연 읽어보시고 억울한 누명 벗겨주세요. 부탁입니

다.

저처럼 체류자격 문제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체류가 제일 문제

네요 시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제주지방법원 법원장님한테 보낸 탄원서 진정서

입니다 .

1년이 더 되어가네요. 불법체류한지

가...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고...

저도 숨어사느라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

냅니다. 순찰하는 경찰만 봐도 날 잡는 건 아닌지 생각되어 가슴이 두근두근 거

리

네요.

또 지난번에는 접촉사고로 다리까지 다쳤지만 ㅜ 그것도 상대방의 불찰로 인한 사건인데 치료도 하기 힘드

네요. 의료 보험도 안될 뿐더러 신분이 탄로날까봐 전전공공하다가 전

화를

들었

지만 결국은 신고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잡히거나 중국 들어 가는 건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

다. 다만 이런 불법체류, 이런 범죄사실로 다시는 입국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

다.

또한 현재로선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서둘러 행동하기도 싫습니

다. 지난 4월에 체류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한 변호사한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피 같은 3백4십 만원을 사기 당한후론 목사를 찾아갈까 스님을 찾아갈까 하던

생각도 다

접은 상태입니

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한국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

네요. 우선은 아파도 병원갈수가 없

네요. 아무리 아파도 약으로만 해결하느라 ㅜㅜ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

다.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지만 그것도 못하고 글 쓰는 걸 무지 좋아해서 한국에서 교포기자

로 일하고 싶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그것도 할 수 없습니

다.

체류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에게 가이드를 할 수 있으며 통역사로 일할 수도 있

어서 이런 힘든 일은 안 해도 되겠지

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싶기도 하

구요, 단 이것도 그냥 막연한 생각 뿐입니

다.

바라건대 법무부나 경찰서에서 부디 세심한 조사를 하시고 저와 같은 이들의 체류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동포 김옥순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올

립니다.

동작경찰서

귀가길 위한 "밤길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운영

동작경찰서(서장 김원환)에서는 밤길 성범죄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치안정책으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체감치안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각 지구대·파출소(14구역)에서는 치안여건·주민요구 등

분석, 귀가길 순찰선 책정 後 112신고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112신고 등 치안수요가 최대한 시간(22시~01시)대와 중첩되는 점을 감안)

이용하실 분은 동작경찰서 상황실 02-813-0112 begin_of_the_skype_highlighting 02-813-0112 무료 end_of_

the_skype_highlighting로 연락하시면 된다.

/동작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손강희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란?

▶ 밤·심야시간대 범죄 취약 지역의 여성이 신청할 경우, 버스·택시승강장 등에서 거주지까지 안전하게 배려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발생한 후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참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진박물관은 늘 참사의 흔적을 보러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코스

“파리”의 영향이 “호랑이”보다 더 크다

중국의 새 지도부가 출범된 이후 부정부패 척결강도가 근 30년 이래 가장 크다는 중앙연역국 당대 맑스주의 연구소 허정커(何增科)소장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파리(지방 중화위직 공무원)의 부패로 인한 피해가 “호랑이(중앙 고위직)가 저지르는 비리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중국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선포됐다.

중국사회과학연구소 문헌출판소는 19일에 발표한 “중국 사회 민정위기관리 보고서(2013년)”에서 작년 지방정부에서 적발된 부패관리자가 전체의 57%로 중앙정부의 탐관에 비해 여전히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교수는 지난날의 불완전한 통제로 보면 매년 약 3~8명의 성부급관리들이 락마됐는데 당의 18대 이후 반란죄우의 시간에 적어도 사천성위 원부서기 리춘청(李春城) 등 9명의 성부급관리가 락마됐

음은 수량이 많고, 빈도(頻率)가 높은것으로 확실히 보기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상해교통대학 민정영구실험실에서 펴낸 보고서는 전체 탐관중 지방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 72.4%에서 2011년의 59%로 줄어들었고 작년엔 57%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중앙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부패척결이 지방정부관리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방탐관은 기층 및 백성들과 직접 접촉하고있기때문에 민중에 대한 해폐가 큰것으로 당정의 의미지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여 다른 한 보도는 “호랑이”는 백성들의 신변과 멀리하고 있기에 “호랑이”들의 부패행위는 오로지 매체를 통해서 알게될뿐, “호랑이”가 락마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현상은 여전히 위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파리”는 다르다. 단위의 부패, 지방정부의 부패행위는 곧 백성들의 신변에서 행세를 부렸기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당연한 불복과 원한을 불어트키게 되는데서 당과 정부의 현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당교의 린저(林赫) 교수는 목전 우리나라의 반부패는 아래의 몇가지 태세로 볼수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당의 18차대회의 정신에 따라 부패의 대안요안을 엄격하게 조사함으로써 부패척결의 고압태세를 계속유지하고 있으며 둘째는 “호랑이”이도 잡고 “파리”도 잡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사정을 봐주지않으며 셋째는 부패척결의 조치는 윗층에서부터 설계하고 윗층에서 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넷째는 부패척결의 매단락사이마다 새로운 반부패활동으로 바꾸어지면서 부패척결의 열도를 낮추지 않는다.

/리헌 기자

모개
같이가고

www.mogef.go.kr

같이하면 더 웃을 수 있습니다
같이하면 더 힘낼 수 있습니다

같이 만큼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

다문화, 같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희망 에너지도 더 커집니다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북권위원회